

바울에게 능력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사도행전 9장 10-22절 요절 15-16절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원수인 사울에게 그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위대한 비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사울의 부르심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가장 극악무도한 원수였습니다.

그는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체포했고 그들의 죽음에 압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흉악한 원수를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 크신 자비와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울은 로마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자신이 죄인중의 괴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우리 세대에서도 사람들을 그분의 도구들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약점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부적합한 후보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들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둘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방인들은 사울과 그리스도가 어울리지 않던 것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지적이고 음란한 믿음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도 하나님과 평화를 갖도록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문화적, 종교적 장벽들을 극복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마음을 배웠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것은 사울의 삶에 많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고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199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울만큼 위험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정교에 속했지만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개신교는 이단이고 이교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이비종교에 빠져있다고 고발할 생각으로 UBF 봄 수양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양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 Almaty UBF의 작은 공동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고,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도하고 학생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에 선교사들이 떠난 후 저는 알마티 UBF의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교인들의 오해와 비난, 그 밖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은 이 세상의 정욕이었습니다.

빈곤 훈련을 받은 후 저는 최고 법률 재무 책임자라는 좋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이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음란물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불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전은 내 마음에서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 했지만 자꾸만 이 죄로 돌아갔습니다.

수치와 거짓말이 저를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목자요, 리더로 섬겼습니다.

저의 영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보존하셨다는 사실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크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불신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 대부분의 저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쓸모없고 해롭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저는 역사를 섬기면서 고통을 받는 것에 정말 지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리더십을 내려놓고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조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COVID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알마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리더십 전환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COVID 제약들이 해제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카고 UBF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숙한 목자들과의 교제와 히브리서 공부는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LA UBF를 포함한 다른 지부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통해 때와 기한이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알마티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것에 흥분하지 않았지만 그 결정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국으로 떠나기 전, 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라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을 지켜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긍휼을 구합니다.

중앙아시아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참된 의미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저는 저 자신만 바라볼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러면 죄와 실망만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사명을 은혜로 주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 특히 북미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 후에 세계 선교의 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이땅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